

심사자	기록사항
-----	------

제목: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자신 이외의 누군가의 이름을 빌리고는 한다. 이를테면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빌려 종교의식을 수행한다. 자식들은 부모의 이름을 빌려 증대사항을 결정하고, 군인들은 임무 수행 시 국가의 이름을 빌린다. 이처럼 이름을 빌리는 행위의 무게감은 굉장히 크다. 그렇기에 빌리는 그 이름은 무게에 걸맞는, 꽤나 대단한 사람이나 조직의 이름이어야 한다.

나에게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삶을 대하라고 한다면 나는 김신 장군의 이름을 빌릴 것이다. 그의 회고록 <조국의 하늘을 날다>에서 보이는 그의 삶은 참으로 다면적이다. 그리고 그 여러면에서 이름을 빌려야만 하는 숭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김신 장군의 '성격', '삶의 궤적', '사상' 측면에서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

첫째, 그의 개인적 성격은 김신 장군, 당신의 이름을 빌려 내 삶을 대하고 싶게끔 만든다. 그의 성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용기'와 '인내'이다. 먼저 그의 행동에서 용기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착륙이 어려운 기지 한 가운데 지점에 전투기 착륙을 성공시키고 나서 상관에게 질타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만용이나 돌발행동이 아닌 "병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한", 대의를 위한 행동이었다. 중국에서도 일제의 감시가 심했던 와중에도 아버지를 따라 독립운동에 부편적으로 투신하였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지점에서 그의 용기를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그의 인내는 거진 예수라든가 고타와 싶다라든가 같이 초월적 존재로 유명한 인물들을 연상하게끔 한다. 안락의 안산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할머니와 같이 중국 타지를 떠돌던 청소년기, 김신의 인내는 이미 나와 같은 범인들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그의 아버지가 백범 김구 선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내도 유진안가의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이러한 개인적 성향들은 나에게 있어서 큰 울림을 주었다. 지나친 일반화일 수도 있겠지만, 꼭 나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경종일 수도 있다. 독립운동가 집안의 차남, 전투기 조종사, 공군참모총장, 성공한 정치인이라는 조건을 다 떼고 그의 성향을 접했을 때 그는 항상 일관되게 용기와 인내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과연 전전라 상황을 배제하고서, 김신 장군만의 용기와 인내를 보여준 적이 있는지 반성하게끔 된다. 불안한 상황, 조건에서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견디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김신 장군의 성격은 나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빌려 삶을 대하고 싶게끔 한다.

둘째, 삶의 궤적에 있어서도 그의 이름을 빌려 삶을 대하는 자세를 갖추고 싶다. 그는 한국, 중국, 미국, 인도 등지를 젊은 시절 돌아다녔다. 스스로를 망국민의 인식하고, '집'으로 여기곳은 조국이 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삶은 다분히 디아스포라적 요소가 존재한다 할 수 있다. 많은 디아스포라들의 생애과정은 그러하듯이, 그 또한 가족-친족 결속력의 해체와 빈곤, 끝없는 이주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평균적 이주민의 삶의 궤적과 김신 장군의 생애과정을 달리 결정할 변수는 김신 장군의 의지라 할 수 있다. 그는 ~~그~~ ^의 삶을 개인적 영성을 제 1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민족과 조국의 번영에 그 목적을 두고 살아왔다. 그가 그토록 그리던 조국에서, 비록 소 평안을 찾을 것 같은 때에 스스로의 의지로 타이완대사를 역임한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관철함으로써 디아스포라의 삶에서 떳떳한 한 국가의 모범시민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들도 의지만 있으면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같은 결론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그만큼 한 사람의 생애과정이 사회구조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군} 김신^{장군}이 그 초인적 의지로 본인의 삶을 개척해나간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 평할 수 있다. 나 또한 나는 사람의 사회경제적 특성, 속한 사회의 구조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김신 장군이 하였던 것처럼 초월적 목표를 계량하여 내 의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나간다면 구조적 문제로부터 내 삶을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궤적과 관련하여, 김신 장군의 이름을 빌려 삶을 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된 사상을 논할 때, 김신 장군의 이름을 빌리고 싶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사상은 나로 하여금 가치관의 재고를 불러일으켰다. 김신 장군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애국애민'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안위 대신 주변 한국의 동포부터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에 있던 시절, 아기적인 장교들을 혼내기도 하였고 타이완에서도 교민들을 위한 학교 건립에 도움을 주었다. 그는 다른 구체적 사상이 있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수칙이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의 애국애민 사상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 순수한 마음의 발로로 그러한 행동, 생각, 말을 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 또한 공군인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김신 장군의 이름을 빌려 애국애민의 사상으로 활동하고 싶다.

김신 장군의 헌신은 울림을 넘어 승미를 불러일으킨다. ^{자신} 그의 안락함을 띄어 넘어 공동체를 위해 투신하는 모습에서 느껴진 것이다. 그의 이름을 강이 빌린다고 해서 내가 순식간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된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그의 이름을 빌려서 나 스스로의 삶, 조직에서의 삶,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닮아가지 않을까 싶다. 나아가 나만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개인적 삶을 대할 때,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대할 때 김신 장군

심사자

기록사항

이름의 무게감을 고려하여 그 이름을 빌려 행동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김신 장군의 이름을 빌려야 한다. 그 이전에
내부서 그의 이름을 빌려 삶을 대할 것이라, 책을 읽으며 대담하게 ~~말~~ 되었다.
김신 장군, 당신의 이름으로.

간담을 넘어 화합으로 -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고

1116 정훈

심사자
기록사항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 사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그릇이 크고, 뜻이 장대하며, 지식이 풍부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그는 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람을 구하고,
나라를 지킨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추앙하고 칭송하지만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 중 한 분이 김구 선생이다.

'백범 김구', 이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는 무게같은 남다른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목숨마저 내걸고 투쟁을 했던 투사이다.^각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으며, 겨레의 아버지이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독립운동가였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가정은 아니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신 장군은 대부분의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이 그렇듯이 따뜻한 가족애를
말할 수 있는 못했다. 물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랑스러
울병심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독립운동을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항상 감시 속에
살았으며 아버지와 떨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김신 장군의 유년기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독립운동과 남일전쟁 뒷바라지 때문에
고생 끝에 일찍 돌아가시고, 어릴 때는 할머니가 돌봐주셨다. '백범 김구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는 때로는 큰 자부심이었으나 때로는 김신 장군이 감당해야 할 숙명이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 덕에 소년은 잘 성장하였고
공군 조종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본관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으나 김신은 만악의 궁극에서 학교를 다니며 불인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다. 큰 의욕 하나를 사계절을 버티기도 하고 병마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김신은 공군군관학교에 들어가 비행훈련을 받았다. 훈련에서 기초 군사 훈련은,
먼저 4호기에서 초등비행훈련을, 그리고 미국에서 목동관 비행 훈련을
받으며 조종사의 길을 걸어 나가게 시작했다. 당시에는 비행훈련을 받는 동안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우 조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항공전력의 중요성과 항공분야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아버지 김구의 응원과 요구 덕에 김신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항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 김구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하여 본인의 아들이 훗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원했다. 그 덕에 김신 장군은 공군 창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고 조국의 하늘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비행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김신은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영원했던 광복과 조국이었으나 현실은 기대만큼 달콤하지 못했다. 짧은 기간이나마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버지 김구와 재회할 수 있었으나 우리 민족은 이념을 이유로 양쪽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남쪽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승만 박사의 정음발언을 시작으로 우리 민족 사이에서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김구는 민족이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여 어떻게든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 방법을 결정하게 되었다. 김구의 방북과 대화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하여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김구는 정치적 유불리나 관계 없이 민족의 리해라 동일이라는 과제 앞에서 정치적 계산보라든 배야 관라든 사명 하나로 불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바깥이 나서야 할 하는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방북 후 김구-김신 부자는 정치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휘말리게 되었다. 김구가 공산당에 의해 이용당했다든 소용이 돌게 되면서 결국 암살을 당했고 김신은 그 후 지속적으로 정치적 견제를 당하게 되었다.

단일정부를 바라던 김구의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을 이루어냈다. 북한의 침입을 시작으로 남북은 동포에게 종칼을 들어 밟게 되었다. 김신 역시 그렇게 영원하던 태극마크를 단 비행기를 타게 되었지만 그 비행기로 조국의 산하에

폭격을 해야만 했다.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김신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배웠던 비행기술을 동족나 싸우는데 쓸 수밖에 없었다. 김신은 상하리
천교 차단 작전 등 많은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며 6.25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된다.

전쟁 후 김신은 공군 참모총장, 주중대사, 교통부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본인의
역량을 쏟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다. 6.25 전쟁, 5.16 군사 쿠데타, 1호선 개통 등
우리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은 경험하며 국익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그리고 조대
독립기념관 이사장, 백범 김구 선생 기념 사업 협회 회장, 백범기념관 관장으로 일하며
독립유공자들을 널리 알리고 그 유족들을 위해 일하는데 앞장 섰다.

사실 이 독립유공을 쓰는 분 필자는 개인적으로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특정 사건의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서술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대부분 그러한 책들은 본인의 행적을 변호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김신 장군의 진실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온갖 인생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내며 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영웅했던 조국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국이 갈라지는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김신 장군의 그 애국심을 이 책에서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는 김신 장군에 대하여 나와는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어쩌면 그는 독립운동가의 자식이었으나 그가 마음을 함께 한 사람들 다가가
바사오라 불리며 일본 만주국 출신 친일파라 불리던 백성이었다. 김신 장군은 독립
유공자이고 6.25 전쟁의 영웅이며, 대한민국 공군의 기틀을 마련한 대한민국
영웅이다. 그러면 김신 장군은 요즘 흔히들 말하는 친일 부역자, 독재 군사정권의
부역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고초의 행적이
중요한게 아니라 국가발전에 힘이 된다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다면 마음이었을까?
오리려 과거의 선배님들 친일, 공산주의자를 떠나 국익이 되는 애국자라면
함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광복회장

김원웅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보수정권은 친일정권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일도 아닌 할아버지의 친일행적을 꺼내며 친일파의 자식이라고 몰아세우거나 토착왜구, 친일파 또는 그 반대로 빨갱이, 간첩, 잘못 좌파라는 프레임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서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 과거처럼 년과제를 겪어온 선조대 왕조국가의 비نگ위를 정답권시하는 것을 아닐까 같다. 서로에 대한 비판과 책망보다는, 할필 것을 앞에서도 잘못을 범했던 김구선생처럼 틀림에 애초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닐까? 조국의 광복을 위해 분투하셨던 선열들과 김신 장군과 같이 공동체를 위해 사를 내려놓고 공을 앞세우려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시 사사로운 개인의 것에 휘둘려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화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조국의 하늘을 날다」 독서 감상문

심사자
기록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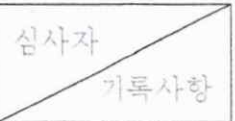
조국의 하늘을 수놓은 —
 호국의 삼위일체

제 147기 학사사관후보생 1중대 2소대 최희찬 (1225)

가슴에는 빨간 명찰, 머리에는 하얀 다이아몬드. 나는 대한민국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이다. 훈련의 반환점을 돌아 결승선을 향해 뛰어나는 지금, 나는 과연 장교다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까. 진주의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이면, 나는 그 푸른 아래 서서 스스로에게 되물곤 한다. 여지없이 불어오는 시원 바람은 혹독한 훈련을 지낸 선배들의 말이 서려있는 듯 야속하게도 정답은 알려주지 않은 채 질문과 고민만을 한바탕 안기고 갈 뿐이다. 고개를 들어 드넓은 장공을 바라보면 언제라도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기 질주할 듯 드높은 기상으로 가득하다. 그 저대할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나는, 가만히 작은 방으로 돌아와 섬세히 대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장교다운의 길을 밝히기 위해 김신 장군님의 회고록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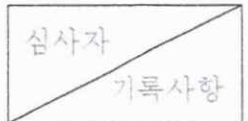
내가 만난 김신 장군님은 위대함이었고 공군병으로서의 자긍심이었다. 수 주 전까지만 해도 공군의 보좌를 받는 국민이었던 내가 석달만에 김신장군님의 후배로서 장교의 정복을 입고 국기를 지키는 사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름을 주게할 수 있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김신장군님의 생애에는 첨단기술사회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가르침이 있다는 점이었다. 시대를 가로질러 쓰거른 울림을 주신 김신 장군님의 일대기는 내게 있어 장교다운의 길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었다. 그 잔잔하고 깊은 감동을 지금부터 묵묵히 적어 내려가 보고자 한다.

1937년 난징폭격 당시, 어린 김신은 조국을 짓밟은 일제가 중국마저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맞서고자 조종사의 꿈을 키웠다. 만신학교 학생 시절 바로 그 일제의 미립비행장을 전락하며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멋진 보라매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 아내, 젊은 김신은 꿈은 향한 마음을 결코 꺾지 않았다. 의세기도 고개나 시간이 흐른 지금이야 과일들은



누구나 인정하고 또 여러 교육의 길도 열려있는 멋진 직책이지만, 벌써 강철기의 그 누가 식민지배하에서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술에 일생을 바렸다는 열정을 볼태를 수 있을까? 내가 느낀 첫번째 감동은 김신 장군님의 "꿈"을 향한 "강건함"이다. 그는 절대 유복한, 아니 평범한 집안에서도 자랄 수가 없었다. 오히려 백범이라는 시대의 위인과 함께 가장 위험한 길을 유년기로 보냈다. 과일도 먹을 돈이 없어 과일 껍질을 훔아 먹을 정도로 생존과 생계가 위태로웠던 그에게 어쩌면 조종사의 길은 사치였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크고 거대한 꿈을 향해 강건히 빛나고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중대부중, 서울연합대학을 거쳐 중국 공군군관학교에 입교했다. 후자는 지금의 잣대를 들이밀며 "적당한 학교들을 거쳐 공군 사관학교에 합격한 정도이 이야기"로 치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의 전투기 파일럿은 지금으로보면 우주비행사에 전를 정도의 첨단기술직이다. 나라를 뺏겨 포탄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아이가 미국이나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양성과정에 합격해 우주인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보면 그 누구라도 경탄을 금치 못할것이다. 그에게는 수많은 핏새가 있었다. 어머니를 일찍 떠났고, 아버지는 나라를 돌보라 가정은 돌볼 수 없었고, 할머니는 노쇠했다. 전쟁의 포화속에서 밥벌어 먹기도 힘들었고, 수많은 질병과 수술을 거치는 등 몸은 다 성취 못했다. 만일 그가 단지 마냥한 집, 따뜻한 식사, 사랑하는 아내와의 가정만을 꿈꾸었다해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은 하늘로 향했고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그는 공군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의 위인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말초적 자극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소확행"을 꿈꾸는 작금의 세태를 둘러보면,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누구보다 큰 꿈을 지켜나간 김신 장군님의 강건함이 더욱 절절히 느껴진다.

꿈을 품고 달려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 그 꿈이 클수록 더욱 그렇다. 위기와 도전은 찾아오기 마련이며 대다수는 최리나 타협을, 소수는 이겨야 할 갖은 수를 써서 간신히 처리 내지는 보편한다. 그러나 김신 장군님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고 거리낌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렇다. 내가 느낀 두번째 감동은



김신 장군님의 "위기"에 대한 "대담함"이다. 승조리 철교 통과 작전개

UN 장성들마저 압도시킨 대담한 전술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은 이미 공군인이다 보면 누구나 익히 알고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그는 장병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라면 혼자 F-51 무스탕을 혼자 몰고 대전 상공을 저공비행하거나 명관급 지휘관임에도 직접 전투비행에 나서는 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함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가족이 금화광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만나 "아저씨, 제가 그 집에 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대목도 상당한 충격이었다. 사소한 것에도 쭈뼛거렸던 나의 행동들이 크게 반성되는 순간이었다. 김신 장군님의 이러한 대담함은 먹지스럽지 않고 자만스럽다는 점에 그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는 그저 "해야할 일을 한다"는 묵묵함 속에서 위기들을 초연히 바라보고 하나씩 해결해내었다. 지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비롯해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감정적으로 답답하고 힘들지만, 작금의 위기를 초연히 바라보고 내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다소 두렵거나 걱정되는 길이라도 담담하고 홀곧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김신 장군님의 발자취를 조금은 따를 수 있을것만 같다.

대담한 과일렌이라 강직한 지휘관이었던 김신은 군복을 벗은 이후에도 중화민국 주재대사로서 국가 만위에 기여했다. 나 역시 전투병과가 아닌 어학우수자 (통역)인 만큼 굳건한 자부심의 유지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다. 어쩌면 김신 장군님에게 있어 외교관의 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던것만 같다. 일평생 공군의 과일렌으로, 마지막에는 참모총장으로써 군인의 길을 살아오신 만큼 정치는 외교제라는 다른 길을 걸어오셨다. 그럼에도 그는 중화민국 주재대사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었다. 그 비결을 나는 "인간"에 대한 "진솔함"으로 느꼈다. 샤오링웨이에서 처음으로 공군 편대가 하늘에 "중정 (장제스의 본명)"으로 축하비행을 하는 것을 보던 보이스카우트 대원은 26년이 지나 조국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장제스와 악수하며 가족같은 환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머스론 재직하는 내내 장제스와 중화민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귀하며 한국과 대만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끈끈한 가교의 역할을 해주었다. 조국과 국민을 위해 투쟁해온 일생 속에서,

심사자

기록사항

그는 사람들에게 진솔함으로 다가갔다.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수송기에 태워 인천 하늘을 맛보여주고, 대만에서는 유학생들을 따듯하게 흔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교민들과 더불어 따듯한 밥을 지어 먹여주기도 했다.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행동들은 결코 과장되지도 화려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를 겪은 사람들에게 깊고 깊은 감동을 주었다. 내가 견제될 동역장교의 길은 사람과 사람을, 나아가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는 사역이다. 다채롭고 자유로운 사람들 속의 관계란 어쩌면 부인을 억지로 더하거나 배배며 조작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솔함이 그 핵심가치가 아닐까 하는 단상에 잠겨볼 수 있었다. 나 역시 김신장군님의 진솔함을 본받아 나를 통해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장교가 되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꿈을 향한 강연함, 위기에 대한 대담함, 인간에 대한 진솔함. 김신 장군님의 일생은 나에게 세 가지 빛을 보여주었다. 이 빛들이 어우러진 삼위일체로서 그의 호국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이 창공을 수놓는다. 장교는 국가를 지킬 국군을 이끌어 나갈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배웠다. 공군의 큰 선배장교로서 김신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가늠없는 호국의 사명을 지닌 자가 과거로부터 이어받아 미래에도 건네주어야 할 희망의 바통임을 깨닫는다. 나아가 이는 학사사관후보생 147기 모두가 6주 후 훈련이 끝에서 쥐게 될 큰 결의이기도 하다. 붉은 명찰을 떼는 그 날, 김신 장군님의 호국정신을 가슴 품은 우리는 드넓은 진주의 창공 아래 서서 그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 장교다움을 내뽐으며 자랑스러운 공군 소위로서 당당히 설 것이다. 하나된 우리 속에서 나는 빛나는 조국의 미래를 올곧게 바라보며 카슴백관 첫 걸음을 내딛으리라.